<전 과목 공부법 칼럼_수학 영역 편>

by 박동현 - 수능 원점수 395점 - 수만휘 과수, 칼럼 활동 - 독학재수학원 공부법, 커리큘럼 멘토

목차

1. 서두
2. 공부법이란
3. 공부의 독, 인강
4. 인강 듣는 법
5. 모든 과목의 공통적인 공부법
6. 본론 (각 과목별 공부법)

< 서두 >

갓 익은(?) 수험생으로서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공부법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내용을 긁어모아서 진심을 다해 작성했습니다.

수능은 단순히 '노력'만으로는 성공하기 어려운 시험입니다. 공부시간과 성적이 정비례하는 학교내신시험이나 과거의 학력고사는 많은 문제를 풀고 많은 유형을 암기한 사람이 좋은 성적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수학능력시험은 매년 신유형, 고난이도 문제가 등장합니다. 제가 직접 공부를 하면서 터득하게 된 '수능'이라는 시험에 맞는 공부법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 공부법이 아닌 다른 공부법으로 점수를 올리신 분들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오르비, 포만한등의 입시사이트에서 여러 공부법을 찾아 비교해보는 건 시간낭비입니다. 초기에 몇 가지 공부법만 적당히 알아보신 다음 본인이 스스로 공부하면서 자신만의 공부법을 찾아나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쓴 공부법을 100% 따르지 마시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적절히 수정해서 공부하시면 더욱 효과적인 공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신만의 공부법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글에서 3가지를 계속 반복하며 강조할 겁니다. 글을 읽다보면 계속 똑같은 말을 표현만 달리 한다는 느낌이 드시게 될 겁니다. 그 똑같이 반복되는 말들이 제가 학생 분들께 진심으로 해주고 싶은 조언이자, 성적상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태도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인강과 수업은 절대 공부가 아니다.
2. 평균이 되지 말자. 제발 반복하자. 복습하자. 여러 날짜에 걸쳐서.
3. 자신만의 공부법을 만들자

수많은 공부 멘토들이 TV나 신문에서 인터뷰했던 내용들을 보면서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답답함을 느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자신만의 공부법을 만드세요." "반드시 복습하세요" 등의 뻔한 말들을 늘어놓는 그들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러한 뻔한 소리들은 이미 알고 있으니깐 그렇게 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요.

저는 돌려 말하거나 모호하게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로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수험생이었기 때문에 이게 정말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 공부법이란 >

먼저 공부법이란 1년의 커리큘럼뿐만 아니라 공부의 '방법'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어떤 인강을 들을까, 어떤 교재를 구매할까를 고민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고민거리는 그러한 콘텐츠를들 '어떻게 활용할까'가 되어야합니다. 누구나 1타 강사의 인강을 듣고, 유명한 단과학원에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모든 학생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 건 아닙니다. 인강을 듣고 학원을 다니는 건 평타치는 겁니다. 수험생들의 '평균'이라는 소리입니다. 평균이면 점수 '유지'입니다. 인강을 듣는 학생의 대부분은 인강을 듣고 연습문제를 풀고 필기내용을 복습합니다. 이렇게 누구나 하는 평균적인 공부를 하고 점수상승을 기대하는 건 모순입니다. 여기까지는 '당연히'하는 평균적인 공부이고 점수 유지를 위한 공부였고, 점수상승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방법이 병행되어야합니다.

하나의 예를 더 들겠습니다. 국어 기출문제집 '마르고 닳도x'라는 책이 있습니다. 시간을 재고 문제를 풀고, 틀린 문제를 고치고 필기하는 것 까지가 평균적인 공부입니다. 이 책을 산 사람들의 '평균'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은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 성적상승을 꿈꾸고 있습니다. 공부한 것 같은데 점수가 안 오르는 근본적인 문제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점수상승을 위한 자신만의 추가적인 공부, 그것이 바로 '공부법'입니다.

지금부터 반드시 따라해야하는 절대공부법 같은 동화 속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공부법을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인강과 교재들의 콘텐츠를 '어떻게' 공부할 지를 고민해보세요.

그게 성적을 올리는 법입니다.

< 공부의 독, 인강 >

밑에 구멍이 뚫린 화분은 위에 엄청 좋은 물과 영양분을 부어도 어차피 다 새나갑니다. 본인이 흡수를 못하니까요. 그런데 화분 밑바닥에 흙을 쌓으면 쌓을수록 물을 부었을때 물의 흡수되는 양이 증가하고 빠져나가는 양이 감소합니다.

물 = 인강

흙 =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흙으로만 화분을 채우셔도 되고, 흙으로 채우면서 적절히 물도 주고 영양분을 주면서 화분을 채우셔도 됩니다. 본인 선택입니다.

우리들의 최종 목표는 화분을 흙으로 가득 채우는 겁니다.

더 이상 좋은 물과 각종 화려한 인강에 현혹되지 마세요.

본인 공부가 먼저고

보조로 인강이 있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혼동하지 마세요.

물론 등급대가 7등급이하 정도인 분들이라면 스스로 흙을 채우는 방법을 배우는 기초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하나하나 배워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인강이나 수업이 별도로 병행 되어야할 필요는 경우에 따라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인강 듣는 법>

저는 수학이든 과탐이든, 모든 영역에서 인강을 듣기 전에 항상 예습을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몇몇 인강 선생님들께서 개념 인강은 예습이 전혀 필요 없다고 말하시는데 저는 그 분들과 생각이 좀 다릅니다. 인강은 절대 같은 집중도로 보면 안 됩니다. 인강을 들으면서 집중도의 템포 조절(?)이 필요한데 이는 수업에 대한 예습이 없다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습을 하고 인강을 듣게 되면 수업내용이 기다려집니다. 집중도를 바꿔가며 인강을 들으면 공부가 지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의에 나오는 자신이 모르는 내용들과 중요한 내용들이 머리에 더 오래 각인됩니다. 남들보다 다르게 더욱더 효율적으로 인강을 듣게 되는 것이지요. 개념인강 같은 경우에도 최소한 인강교재에 나오는 용어를 '암기'하고, 필요에 따라 바이블이나 하이탑을 추가해서 독학으로 개념을 암기하고 수업 때 '이해'해야지, 수업시간에 개념 정의에 집중하면 정작 중요한 선생님의 말은 점점 머릿속에서 흘러나가게 됩니다. 과목별로 인강의 예습방법은 차이가 있으니 뒤에서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강을 듣고 복습을 할 때는 하루에 몰아서 복습하지 말고 여러 날에 걸친 복습을 해주세요. 인강을 듣고 저녁에 연습문제를 풀고 필기복습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공부한 게 아니라 그냥 손 운동 한 겁니다. 기억에 의존해서 그냥 형식상의 복습을 한 셈이지요.

제가 모 인강을 들었던 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물론 인강마다 방법은 조금씩 차이는 존재합니다. 만약 화요일 날에 과탐 개념인강 1강을 듣는다고 치면, 일단 월요일에는 인강교재에 나온 개념을 혼자 공부합니다. 그리고 하이탑이라는 책으로 1강에 해당하는 단원을 예습합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 인강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월요일에 읽었던 하이탑 부분을 변화된 시각으로 다시 공부합니다. 당일은 복습을 하지 않습니다. 수요일에는 개념인강에 실린 몇 문제 안 되는 유제들을 풀어봅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인강 교재의 내용을 복 이렇게 공부하면 양이 엄청 많아 보이는데 사실 하루에 몇 십분 이내로 공부한 겁니다. 계속 머릿속에 자극을 주는 것이지요. 만약 인강을 하루에 1강씩 듣는다면 이런 형식이 되겠지요.

월	화	수	목	금	토
1강 예습	인강 1강	1강 유제	인강교재 복습	예습교재 복습	
	2강 예습	인강 2강	2강 유제	인강교재 복습	예습교재 복습

이제 눈치 채셨나요. 바로 누적복습입니다. 다음날에 한번 복습하는 건 그냥 암기테스트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날, 다음 주만 되도 기억의 절반이 가물가물해 집니다. 인강도 체계적으로 들어야합니다. 물론 위에서 설명드린 5일씩의 공부를 따라하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예습이 오래 걸리는 인강이 있고 복습이 오래 걸리는 인강이 있습니다. 날짜나 방법은 개인마다 당연히 달라야 하므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반복하세요.

복습하세요.

'1타강사의 어떤 인강을 들을까'를 고민하지 마세요. 강의를 '어떻게' 들어야 할지를 고민하세요.

이 글을 읽고 어떤 분께서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월요일 날 공부한 내용은 무슨 요일까지 복습해야 하나요?"

이 분은 아직 제 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신 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능동적인 공부'입니다. 같은 파트를 공부해도 누군가에게는 어려울 수 있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쉬울 수 있습니다. 이걸 본인 말고 다른 사람이 더 잘 알고 있을까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어려운 파트를 공부한다고 느껴지면 복습일자를 늘리면 되고, 쉬운 부분을 공부하고 있으면 복습을 하루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신만의 공부'를 하세요.

<모든 과목에서 사용한 공통적인 공부법>

반복하세요. 복습하세요. 반복하세요.

공부를 할 때는 '어떻게 복습할까'를 항상 고민해야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복습은 다음날 한번 보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냥 평타치는 겁니다. 복습은 과목마다 분량과 콘텐츠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방법이 약간씩 달라야합니다. 내용이 많은 파트는 반복횟수와 방법을 달리해주면서 본인 스스로 능동적인 공부를 해야 합니다.

제가 써드리는 방법은 '복습'을 하기위한 하나의 예시에 불과합니다. 제 방법을 100% 따라하는 게 아니라 '복습'을 따라해 주시되 방법은 달리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분량도 물론 스스로 조절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모르는 내용이 다르고 받아들이는 속도가 다른데 복습의 횟수와 시간, 그리고 방법이 같을 수가 없고 같아서도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모든 과목에서 3가지 볼펜을 이용해서 공부했습니다.

1번: 낯인 문제에 필기하는용

2번: 실력 문제에 필기하는용 (모르는 개념 등)

3번: 맞긴 했는데 돌아가거나 버벅거리어서 시간이 오래 걸린 문제에 필기하는용

저는 모든 과목에서 3가지 볼펜으로 필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필기한 내용을 노트에 그대로 옮겨 적는 것이 아니라, 요약을 해서 적습니다. 또 그 다음날에 그 노트에 쓴 내용을 읽으며 복습했습니다. 그리고 읽으면서 까먹을 것 같은 필기내용들은 따로 체크를 해서 주말에 노트에 모아서 가볍게 스캔하며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평가원 모의고사 전에 다시 한 번 노트를 복습했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한다고 해도 전부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강의를 듣고 필기해서 그 다음날 복습하고 끝낸다면 그중 얼마만이 머릿속에 남아있을까요?...

무조건 반복하세요.

반복안하면 기껏 공부한 시간과 필기한 내용들이 무의미해집니다. 남들 듣는 강의를 듣고, 숙제도 다하고 분명히 공부를 한 것 같은데 점수가 안 오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건 평균치의 사람들이면 누구나 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반복하는 방법을 저는 위와 같이 했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개인마다 당연히 방법은 달리해도 됩니다. 개인에게 맞게 복습날짜를 정하고 양을 정하고 방법을 만드시면 됩니다.

제 방법을 무조건 따르지 않으셔도 됩니다만 꼭 '복습'을 해주세요.

반복하세요..

반복하세요..

공부를 점수로 보상받기 위해서는 반복해야합니다.
문제집을 '많이'푸는 게 공부를 '많이'하는 건 아닙니다.

반복하세요.

하지만 제 방법을 100% 따르지는 마세요.

본인 스스로 분량과 시간을 정하세요. 본인이 제일 잘 알겁니다.

반복하세요.

각 과목별 세부적인 반복 학습법은 뒤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론 - 수학영역 공부법 >

- 개념 공부법 (3등급 이상)

개념 공부법은 상위권과 하위권으로 구분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위권 대상 개념 공부법입니다. 일단 수학 개념서, 개념인강, 문제집을 가지고 개념공부를 진행할 겁니다. (개념서 추천: 수학의 바이블, 숨마쿰라우스) (문제집 추천: EBS 수능기출플러x - 양이 적어서 좋다). 일단, 여기서 1등급 분들은 "내가 개념을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개념'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완벽하게 알고 있다고 여기는 단순한 공식 따위의 것들을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개념은 공식이 아닙니다. 정의내리기 어렵지만 개념이라는 것을 억지로 정의해보자면 '공식까지의 도달 과정'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식까지의 과정을 알게 되면, 공식만 알았을 때 풀리지 않던 문제들이 하나하나 접근 방법들이 보이게 되는 이른바 '실전개념'을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됩니다. 물론 공식까지의 과정 외에도 '실전개념'이라는 것에 포함되는 다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인강을 듣거나 문제풀이를 하면서 터득하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공부 방식은 앞에서 말씀드린 인강 듣는 법과 유사함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공통적이어서 계속 반복된다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화요일 날 개념인강 1강을 듣는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월요일에 개념서로 1강에 해당하는 파트를 공부합니다. 이때는 개념서에 나온 공식유도 과정을 백지에 스스로 써보시길 바랍니다. 상위권 분들이라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이때, 내용을 그대로 베껴 적는 손목운동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백지복습이란 교재에 있는 내용을 백지에 안보고 적는 방법입니다. 절대 내용을 그대로 받아쓰기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주의사항입니다. 자기가 머릿속에 내용을 넣고 그걸 떠올려서 백지에 적는 것이지 그냥 보고 받아 적으면 효율제로입니다. 그리고 백지복습 할 때, 남에게 가르쳐주듯이 속으로 말하면서 공부하면 공부효율이 극대화됩니다.

양이 적다고 생각되시면 화요일 날 개념인강을 2개 듣거나, 다른 과목을 공부하시면 되겠죠? 능동적인공부, 자기만의 공부법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양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월요일 날 개념서로 예습을 하시고 화요일에 그에 해당하는 인강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인강교재에 있는 연습문제를 풀어봅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인강교재에 필기한 내용을 백지복습 해봅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문제집에 있는 화요일 인강을 들었던 부분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풉니다. 이때는 많은 문제를 풀 필요는 없기에 문제 양이 적은 수능기출플러x를 앞에서 추천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인강 1개씩 진도를 나간 다고 하겠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개념서 예습	1강 인강	1강 문제	1강 복습	문제집 풀기		
	개념서 예습	2강 인강	2강 문제	2강 복습	문제집 풀기	
		개념서 예습	3강 인강	3강 문제	3강 복습	문제집 풀기

그렇다면 이렇게 되겠죠?

제가 앞에서 공부법을 100% 따라하지 말아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지금 인강을 듣고 3일치 복습을 하는 예를 들었는데 복습을 3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쉬운 파트를 공부하고 있으면 저기 위에 3일치 복습을 하루에 다 하시면 되고, 어려운 부분을 공부하면 개념서 복습을 추가하면 됩니다.

더 이상 비효율적인 공부가 아닌, 자신에게 최적화된 가장 효율적인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위의 표 대로 공부를 하다보면 인강을 듣느라 복습을 못하는 날이 올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강으로 진도 나가는 건 절대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강을 하루 미뤄서라도 꼭! 복습을 해주세요. 인강을 미뤄야지 복습을 미루면 안 됩니다.

인강교재와 문제집에 나오는 수학문제를 푸는 방법은 뒤에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개념을 끝내고 바로 수능을 본다는 마음가짐으로 개념을 공부해주세요.

- 개념 공부법 (4등급 이하)

이 글을 읽고 계신 4등급 이하의 학생분. 지금 수학 성적 상승을 간절히 원하고 계시나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등급에서 1등급까지 오르는 것이 절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저는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절대 해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앞의 글을 읽어오셨다면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수학 성적 상승은 정~~말로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하면 됩니다.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1. 노력을 하지 않았다.
2. 방법이 잘못 되었다.

제가 제일 안타까워하는 학생이, 노력은 대한민국 최고인데 방법이 잘못 되어서 성적이 계속 하위권에 머무르는 학생입니다. 수학성적상승을 간절히 바라는, '노력'이 준비된 분들이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등수학 개념서, 고등수학 인강, 수학 개념서, 개념인강, 문제집을 가지고 개념공부를 진행할 겁니다. (고등수학 개념서 추천: 수학의 바이x, 수학의 정x) (고등수학 인강 추천: etoox 정승x) (개념서 추천: 수학의 바이x, 수마콤라우x) (문제집 추천: 4~6등급-자이스토리 2,3점 문제들만, 6등급 이하-썬).

여기서 말하는 고등수학 개념서와 고등수학 인강은 고등수학(상), (하)를 의미함
수학 개념서와 개념인강은 수1, 수2, 미통기, 적통, 기백 인 정규 커리큘럼을 의미함

여기서 만약 다른 과목공부로 인해 시간이 없다면 4~5등급대 분들은 고등수학을 빼도 상관은 없습니다. 고등수학을 병행하는 이유는 수능에 고등수학의 개념이 다른 단원과 결합하여 4점 문제가 출제되고, 수1~기백을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수학의 기초를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등수학을 혼자 독학하는 건 명백한 시간낭비입니다. 고등수학에서도 수능에 필요한 개념이 있고 필요 없는 개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구분을 스스로 할 수 없기에 15강 내외의 고등수학 인강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등수학을 공부할 때는 개념서로 예습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인강을 듣고 나서 그 다음날 개념서로 공부를 합니다. 개념서는 처음부터 다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강에서 배운

부분을 찾아서 그 부분만 복습하시면 됩니다. 분량은 일주일에 인강 2~3개가 적당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은 4등급이하 6등급이상의 분들은 고등수학과 수1부터의 정규 진도를 같이 병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등수학은 '부'공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등수학에 대한 문제는 인강교재에 있는 1~2문제만 풀면 됩니다.

그리고 7등급이하의 분들은 고등수학'만' 진행해야 할 겁니다. 고등수학공부가 '주'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등수학에 해당하는 문제풀이까지 추가로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기초부터 천천히 다져나가야 수1부터의 공부가 수월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고등수학 공부는 이렇게 진행되겠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고등수학인강 1강	1강 개념서 복습	인강교재 복습		
		고등수학인강 2강	2강 개념서 복습	인강교재 복습

여기에 7등급이하의 분들은 인강교재를 복습한 다음날에, 개념서에 있는 배운 부분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주의! 고등수학을 전부다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강에서 배운 파트만 찾아서 공부하시는 겁니다.

물론, 분량과 복습횟수는 본인 스스로 정해야 합니다. 본인이 어렵다고 느끼면 복습을 늘리면 되고 쉬운 부분을 공부하면 복습을 줄이면 됩니다. 능동적인 공부!! 본인에게 최적화된 공부를 해서 효율을 극대화 시키시길 바랍니다.

정규 진도를 나가는 법은 이와 비슷합니다. 고등수학과 다른 점은 인강을 듣기 전에 예습을 한다는 것입니다.

공부방식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께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개념'이라는 것은 단순한 공식 따위의 것들을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개념은 공식이 아닙니다.

개념공부는 공식 암기가 아닙니다.

이 내용을 받아들이고 공부해야지 수학 실력이 올라갑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 보셨다면 경험해보셨을 겁니다. 분명 삼각함수 공식 외웠는데 문제는 풀리지 않는, 분명 수열을 공부했는데 새로운 수열문제를 보면 접근을 못하는 그런 상황일요.

이제는 개념에 대한 관념을 깨고 개념공부를 해야 합니다.

정의하기가 어렵지만 개념이라는 것을 억지로 정의해보자면 '공식까지의 도달 과정'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식까지의 과정을 알게 되면, 공식만 알았을 때 풀리지 않던 문제들이 하나하

나 접근 방법들이 보이게 되는 이른바 '실전개념'을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됩니다. 물론 공식까지의 과정 외에도 '실전개념'이라는 것에 포함되는 다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인강을 듣거나 문제 풀이를 하면서 터득하게 되는 것이고요. 공식까지의 과정을 알아야 인강에서 설명하는 내용의 흡수력이 올라갑니다. 그렇게 실전개념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화요일 날 개념인강 1강을 듣는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월요일에 개념서로 1강에 해당하는 파트를 예습합니다. 이때는 개념서에 나온 공식유도 과정을 백지에 스스로 써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때, 내용을 그대로 베껴 적는 손목운동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백지복습이란 교재에 있는 내용을 백지에 안보고 적는 방법입니다. 절대 내용을 그대로 받아쓰기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주의사항입니다. 자기가 머릿속에 내용을 넣고 그걸 떠올려서 백지에 적는 것이지 그냥 보고 받아 적으면 효율제로입니다. 그리고 백지복습 할 때, 남에게 가르쳐주듯이 속으로 말하면서 공부하면 공부효율이 극대화됩니다.

양이 많다고 생각되시면 예습을 2일에 걸쳐서 진행하면 되겠죠?
능동적인공부, 자기만의 공부법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양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월요일 날 개념서로 예습을 하시고 화요일에 그에 해당하는 인강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인강교재에 있는 연습문제를 풀어봅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인강교재에 필기한 내용을 백지복습 해봅니다. (베껴 적지 마세요...)
 그리고 금요일에는 문제집에 있는 화요일 인강을 들었던 부분에 해당하는 문제를 푼다. 이때는 많은 문제, 어려운 문제를 풀 필요는 없기에 자이스토리 2~3점짜리 문제들이나 썬을 앞에서 추천해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인강 1개씩 진도를 나간 다고 하겠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개념서 예습	1강 인강	1강 문제	1강 복습	문제집 풀기		
	개념서 예습	2강 인강	2강 문제	2강 복습	문제집 풀기	
		개념서 예습	3강 인강	3강 문제	3강 복습	문제집 풀기

그렇다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대로 따라하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개념이 어려우면 예습이나 복습시간이 지연되므로 스케줄이 밀릴 수 있는데, 그러면 변형을 알아서 능동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꼭 부탁드립니다. 인강으로 진도 나가는 건 절대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강을 하루 미뤄서라도 꼭! 복습을 해주세요. 인강을 미뤄야지 복습을 미루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개념서 예습	1강 인강	1강 문제	1강 복습	문제집 풀기		
	개념서 예습		2강 인강	2강 문제	2강 복습	
			개념서 예습	3강 인강	3강 문제	3강 복습

이건 예시에 불과합니다. 이대로 수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에 맞게 능동적으로 수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인강듣고 복습을 3일 잡아뒀는데, 3일을 복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쉬운 파트 공부할 때는 복습 일자를 줄이면 되고, 어려우면 복습을 늘리면 됩니다.

더 이상 비효율적인 공부가 아닌, 자신에게 최적화된 가장 효율적인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개념을 끝내고 바로 수능을 본다는 마음가짐으로 개념을 공부해주세요.

개념을 끝내고 바로 수능을 본다는 마음가짐으로 개념을 공부해주세요.

간절함을 가지고 공부해주세요.

- 문제 푸는 법 (답지 보는 법)

문제 푸는 법이라고 할 수 있고, 답지를 활용하는 법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강교재에 있는 문제나 기출문제와 같은 수학문제를 푸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실전모의고사가 아닌 이상, 그냥 수학문제 풀 때는 시간을 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집중도가 떨어지고 '노력'을 안하게 됩니다. 문제가 안 풀리면 "그런가보다"라는 안일한 태도로 문제를 접근하게 됩니다. 물론 그러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시간을 재고 문제를 풀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최대한 실전처럼 문제를 풀 때만큼 '긴장'하시고 끝까지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힘들면 시간을 재면서 문제를 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수학문제를 풀 때는 5~10문제씩 풀고 채점과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예를 들어 6번까지 풀고 채점하겠다고 정하고 문제를 풉니다. 그러다가 4번에서 막히면 1분정도 고민하고 5번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6번까지 푼 다음에 채점을 합니다. 물론 못 풀거나 찍은 문제는 정답을 보지 않습니다.

이제 틀리거나 모르는 문제들을 해결할 때가 왔습니다.

일단 절대 바로 답지를 보지 않습니다.

안 풀리는 문제는 가시 고민합니다. 이때 저는 1~10분 사이로 문제의 성격마다 고민하는 시간을 달리 했습니다. 솔직히 이러다 풀리면 기분 개 좋습니다. 그런데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풀리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결국 고민하다가 답지를 보게 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되겠다고 느낄 때만 해설을 보세요.

아니면 고민하다가 언젠간 풀리게 되어있습니다.

해설을 보게 되었을 때는 해설의 전부를 읽으면 절대 안 됩니다.

자신이 막혔던 부분을 먼저 해설에서 찾으세요. 그리고 그다음 1~2줄만 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막혔던 부분에서 넘어가는 그 '연결고리'를 발견하세요. "아 이럴 때는 이렇게 넘어 가는구나" "이런 표현은 이렇게 해석해야하는구나"라고 본인이 스스로 깨달으면 됩니다. 그 문제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문제는 절대 똑같이 나오지 않습니다. 문제 속에 있는 '연결고리'가 다른 문제에서 출제되는 것입니다. 그게 '출제의도'가 될 수 있겠고요.

이제 1~2줄만 읽으셨으면 해설을 덮으시고 막혔던 부분부터 다시 풀어나가세요. 해설을 끝까지 보면 안 되고 '막혔던 부분'만 체크하고 문제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막히면, 또 고민하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되겠다고 생각되면 똑같이 해설 1~2줄만 보고 새로운 '연결고리'를 공부하시면 됩니다.

해설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게 되면 그 과정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문제속의 '연결고리'들이 너무나도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해설을 보기 전에 본인이 스스로 생각할 때는 절대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해설을 끝까지 보게 되면 자신이 모르는 '연결고리'를 자연스럽게 놓치게 되고, 그 연결과정이 수능에 출제되면 틀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틀린 문제들을 고치면 다음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맞은 문제들에 대한 내 풀이를 해설지와 비교합니다. 해설과 내 풀이가 똑같다면 복습을 하는 셈이 되고, 만약 다르다면 새로운 접근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수학풀이를 복습하고 새로운 접근 방법과 더 빠른 풀이를 배우는 것은 절대 해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유익한 플러스 알파공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 푸는 속도도 빨라질 수 있고요.

그리고 저는 수학문제를 풀고 페이지를 넘길 때, 항상 풀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혹시 놓친 포인트가 없나 끝까지 고민했습니다. "어쩌면 다시는 풀지 않을 수 있는 풀었던 문제들에서 내가 놓친 연결과정이 숨어있지는 않을까"하는 마음으로 공부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냥 지나가는 수학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문제 한 문제를 살면서 다시는 못 보게 될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초집중으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문제를 풀고 새롭게 배운 연결 과정들을 문제에 필기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에 필기한 내용들을 노트에 '요약'하면서 머릿속으로 한 번 더 되뇌어보았고, 그 다음날에는 노트에 필기한 내용을 눈으로 다시 한 번 스캔하며 문제를 회상했습니다. 앞에서 말한 '노트복습법'을 수학영역에서 이렇게 이용했습니다.

문제를 푸는 방식은 개인마다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100% 따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제가 앞에서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3가지의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될 거라고요.

- 1. 인강과 수업은 절대 공부가 아니다.**
- 2. 평균이 되지 말자. 제발 반복하자. 복습하자. 여러 날짜에 걸쳐서.**
- 3. 자신만의 공부법을 만들자**

이 3가지가 반복되고 있다는 걸 느끼셨나요?

그렇다면 제 글을 완벽하게 파악하신 겁니다.

이제는 실천으로 옮기기만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솔직한 이야기 하나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누적 복습, 예습 하는 거
솔직히 귀찮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려서 답답하구요..

그래서 아마 이 글을 읽으시는 많은 분들은 공감정도만 하고
제대로 시행 못할 거라는 건
저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글을 몇 명 정도가 읽어주실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딱 한 분이라도,
천명이 넘는 분들 중에 딱 한 명이라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지켜주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이글의 목적과 취지는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 분이
이 글을 읽고 있는
바로 당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들과 똑같으면 평균이고, 평균이면 점수유지입니다.
귀찮은 걸 해냈으니까 평균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남들과 똑같지 않았으니까 점수가 오르는 겁니다.

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